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장벽을 넘어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참여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꼼꼼히 따져보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장벽을 넘어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참여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꼼꼼히 따져보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장벽을 넘어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참여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꼼꼼히 따져보라!

2007대전대선시민연대 창립기자회견

2007년 10월 11일(목) 오전11시 ▪ 대전YMCA 5층강당

2007대전대선시민연대

대전시 중구 선화동 20번지 창성빌딩 203호
전화 042-253-3241 042-257-3211, 팩스 042-253-3244

2007대전대선시민연대 창립기자회견 순서

인사말씀

참석자 소개

취지 및 경과보고 (2쪽)

조직구성 및 활동계획 발표 (3~10쪽)

창립선언문 낭독 (11~12쪽)

퍼포먼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장벽을 넘어라**

질의응답

폐회

2007대전대선시민연대 창립취지 및 경과보고

[창립취지]

- 경제만능주의, 성장주의가 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유권자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 고자 한다.
- 생태, 복지, 평화, 여성, 지역의 눈으로 대선후보의 공약을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다.
-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의 주요의제,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은 공약을 후보자들에게 제시한다.
-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문화를 만들어 간다.

[추진과정]

- 2007년 6월 27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선관련 전국 토론회 참석
- 2007년 7월 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 토론회 개최
- 2007년 7월 1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대선대응 활동 추진기로 결정함
- 2007년 8월 - 9월 지역 제 사회단체에 대선대응활동 제안서 발송
- 2007년 9월 18일 2007대전대선시민연대 1차 준비회의
- 2007년 10월 9일 2007대전대선시민연대 2차 준비회의
- 2007년 10월 10일 대표자 간담회

[조직현황]

1. 명칭 : 2007대전대선시민연대

2. 참여단체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독교청년회(YMCA), 대전여민회,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전충남지회

3. 조직구성

■ 의결단위

○ 공동대표 : 참여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

권술룡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대표
김규복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김연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회장
김용우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사장
박 경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회장
송관욱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전충남지회 회장
송인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안정선 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이문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상운 대전기독교청년회(YMCA) 이사장
전숙희 (사)대전여민회 공동대표
차재영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용세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 상임공동대표 : 공동대표 중 5인을 상임공동대표로 한다.

김규복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송인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안정선 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전숙희 (사)대전여민회 공동대표
차재영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집행단위

- 집행위원 : 참여단체 실무대표로 구성, 대전대선연대의 주요활동을 추진한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병기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사무국장
김봉구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소장
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진연 (사)대전여민회 사무처장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치현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무처장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이기동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매체감시팀장
이충재 대전기독교청년회(YMCA) 사무총장
장동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장수찬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총무

- 상임집행위원 : 집행위원 중 6인으로 구성하며 일상활동을 추진한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진연 (사)대전여민회 사무처장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이기동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매체감시팀장

이충재 대전기독교청년회(YMCA) 사무총장

- 상임집행위원장 :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활동기구

- 정책검증 및 공약개발단 : 송인준 단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 후보자들의 지역공약 분석 발표
 - 후보자들의 폐기공약 발굴, 발표
 - 지역의제 발굴
 - 대전, 충남지역 지자체 요구 정책의제 분석 및 입장발표 등
- 정책자문위원회 : 박 경 위원장, 대전충남민교협 회장 ▪ 목원대 교수
 - 공약분석, 폐기 공약 발굴, 지역의제 발굴 시 정책자문 역할
 - 교수, 전문가로 구성
- 유권자운동본부 : 이충재 본부장, 대전기독교청년회 사무총장
 - 유권자 참여 운동 추진
 - 유권자위원회 구성하여 폐기공약 결정 과정에 참여
- 매체감시단 : 차재영 단장, 대전민언련 공동대표
 - 지역 신문, 방송 모니터링 실시, 발표
 - 언론과 함께 하는 후보자 정책분석, 선거참여운동 추진

■ 사무국

- 공동사무국장 : 이상재(대전기독교청년회), 양홍모(대전충남녹색연합)
- 공동사무국 :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둔다.
 - 정책팀, 유권자운동팀, 매체감시팀, 운영팀(사이버, 부정선거감시활동)으로 구성하여 활동

- 상근활동가

이상재(대전기독교청년회)

양홍모(대전충남녹색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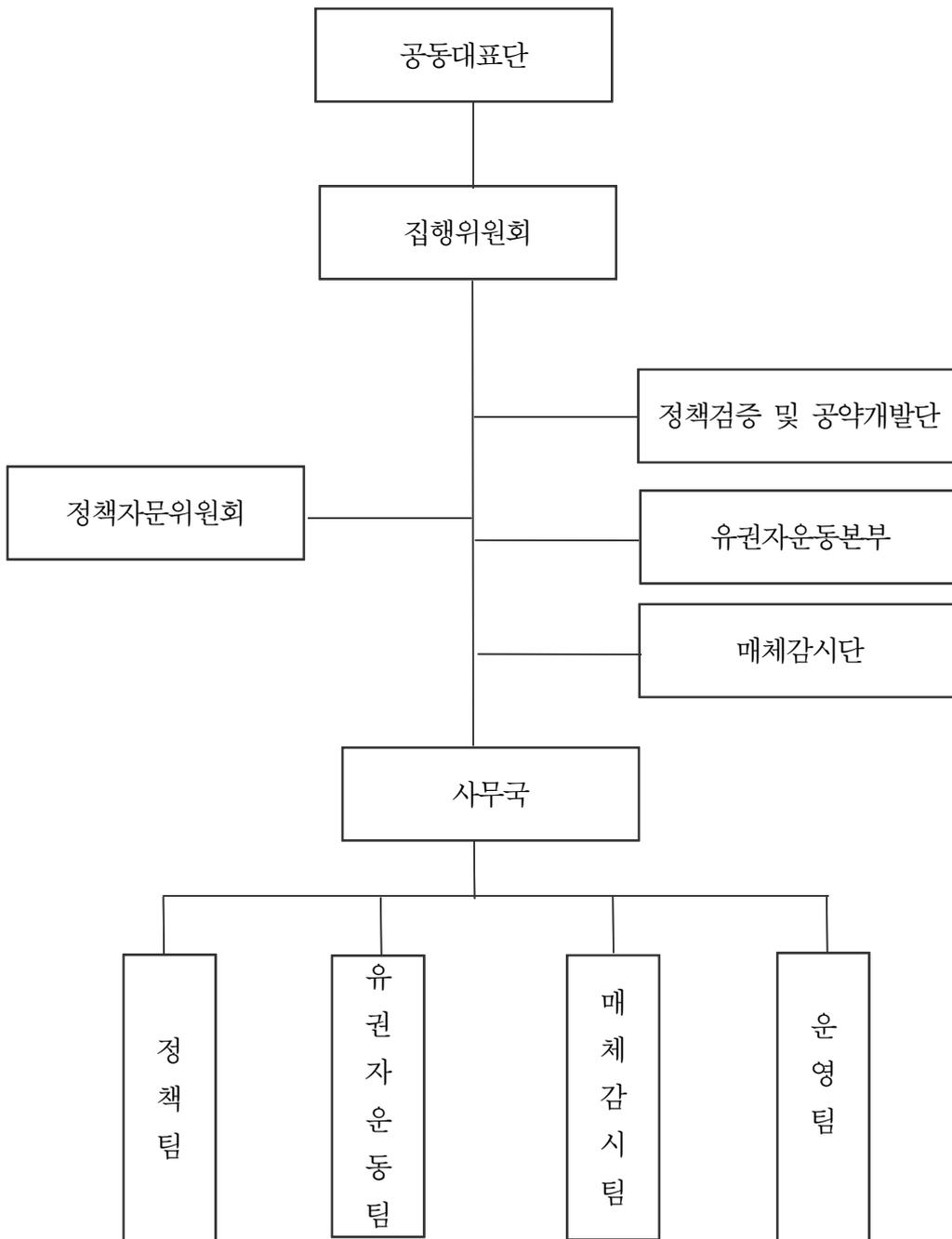
이기동(대전민언련)

문창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안인숙(대전여민회)

김서현(대전환경운동연합)

■ 조직구성도



[활동계획]

1. 정책활동

1) 공약 및 후보자 자질 검증운동

- 후보자들의 공약을 지역적 관점에서 분석, 발표
- 후보자들의 지역공약 분석, 발표
-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 검증 지표 마련, 검증 후 발표
- 베스트 공약, 위스트 공약 발표

2) 공약 철회운동

- 생태, 복지, 여성, 평화, 지역의 관점에서 철회공약 조사
- 회원 및 시민들의 사이버 투표를 통한 철회공약 선정
-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철회공약 분석 및 검증
- 유권자위원회 구성을 통한 철회공약 검증
- 공약철회운동 추진

3) 지역의제 제안운동

- 지역적 관점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의제 발표
 -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지역의제 발굴
 - 유권자운동을 통한 지역의제 발굴
- 대전, 충남, 충북의 공동 제안 의제 발표
- 대전,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제안 의제 분석, 입장 발표
- 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의제 발굴

2. 유권자운동

1) 2007대통령선거 우수 공약 공모사업

- 2007년 대통령선거를 맞아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참신한 선거 공약 공모
-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하고 유권자 목소리 담아낸다.
- 객관적 심사과정을 거쳐 훌륭한 공약은 공약개발단을 통해 각 후보 진영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각 대선후보 진영의 공식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세부 실천 방안
 - 2007대전대선시민연대에 참가한 개별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공약공모
 - 요구 공약과 간단한 공약선정이유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심사를 통해 현실성 있는 우수 공약 선정
 - 선정된 공약 제출자에게는 소정의 상품 지급

2) 유권자위원회 구성

- 공약검증 및 폐기공약 선정 과정에 참여하여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도록 함
- 참여단체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권자위원회 참여 독려

3) 12월에 19세부터 투표하자! 20대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1219운동'

- 12월 19일 펼쳐지는 2007대통령선거는 만 19세이상으로 투표연령이 낮아진 후 처음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 이번 대선에 첫 투표하는 19-24세의 유권자 수가 10%에 이르고 있지만 젊은 층의 투표율은 갈수록 낮아져 최근 20대의 투표율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인 20대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인 등 록금 인하, 실업대책 등에 대한 캠페인도 함께 벌여 20대의 투표참여와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 세부실천방안
 - 대전지역 주요대학의 총학생회와 연대하여 '12월엔 19세부터, 투표참여' 캠페 인'을 추진
 - '투표참여 UCC발표회', '내가 대통령이라면?', '투표참여 여론조사' 등의 행사

를 각 대학 및 대전 시내 유명거리에서 순회 개최한다.

4) 기타 유권자운동

- 투표참여 자전거 행진단, 2007대선을 위한 릴레이 번개모임, 매체감시와 공정 선거감시 자원봉사활동 등 이번 대선에서는 유권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추진

3. 매체감시운동

1) 조직

- 대전충남 민언련 모니터 팀을 기본으로 운영. 대선모니터단 공개 모집
- 신문모니터팀, 방송모니터팀, 인터넷 신문의 경우 실무팀에서 모니터링함

2) 모니터 대상

- 신문 :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3개 매체)
- 방송 : KBS대전충국, 대전MBC, TJB대전방송 9시 뉴스 및 대선관련 프로그램
- 인터넷 신문 : 디트뉴스24, 대전충남 오마이뉴스

3) 모니터 방식 및 기간

- 모니터 기간 : 10월 셋째 주~대선까지
- 모니터 방식
 - 매주 모니터 회의 후 보고서 발표(신문, 방송 별도 보고서 발표),
 - 인터넷 모니터의 경우 사안별 보고서 발표(비정기적)
- 전국 민언련 차원의 모니터단 활동과 연계해 진행 예정.
2007 민언련 대선모니터단 : 10월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출범.
- 모니터 기준
전국민언련 대선 모니터단 선거보도 준칙 및 대선연대(대전대선연대) 선정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모니터 진행.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의제, 지역핵심 의제에 대한 지역 언론의 보도 모니터.

4) 모니터 교육 : 10월 23일~24일

(공개 모집 모니터 대상 기본 교육 및 기존 모니터단 재교육)

5) 지역언론의 올바른 대선 보도를 위한 유권자 행동 적극 전개

- 언론모니터 보고서 결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보고서 외에 성명, 논평 발표 및 해당 언론사 항의 방문
- 대선대선연대, 지역 언론 편집국장 대선 보도 간담회 개최
- 지역 유권자를 위한 대선보도 공동 기획 제안 및 유권자 캠페인 전개
- 지역유권자를 위한 대선보도 공동 기획
 -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의제 및 지역 대선 의제를 중심으로 공동 기획보도
 - 유권자 선거 참여 캠페인 공동 홍보 등

4. 총괄운영

- 지원활동
- 사이버운동
- 부정선거감시활동 : 고발전화 042 - 257 - 3211
- 기타활동

[창립선언문]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삶의 질이 높아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의 10년을 결정할 대선이 69일 남았다. 90명에 이르는 예비후보가 난립하고, 각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정당들은 대선을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얼어붙은 국민의 마음은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권자의 축제이자 민주주의의 꽃인 대통령선거에 국민의 자발적 관심과 열띤 토론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고 구태의연한 선거행태와 지지부진한 경선평도는 국민의 절망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눈앞의 정치현실이 우리를 실망시키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과 함께해온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처한 질곡을 극복하고 평화, 평등, 생태, 복지사회를 향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과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 지역과 계층을 강화하고 고립화시키는 낡은 성장체제를 자연과 사회가 공존하는 생태평화체제로 바꾸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극복할 대안을 찾으며,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 청소년이 자살을 하지 않아야 되는 질 좋은 공교육과 교육받고 교육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

하여 대전의 13개 시민사회단체는 몇 차례의 논의를 거쳐 대전시민과 함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전발전과 도심간, 계층간 양극화 극복, 교육의 질 향상, 주거복지 실현, 성 평등사회를 앞당기는 데 이번 대선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 대전대선시민연대를 출범한다.

대통령 선거가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공학적 계산이나 정치인들의 이권투구판이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국정을 준비하고 수행하기 위해 국민의 판단과 평가를 엄정하게 받는 과정으로 정상화시켜 국민참여를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민주주의의 축제로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전대선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활동에 주력하고자 한다.

첫째,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검증을 통해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리더, 5년간

의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평가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할 것이다. 각 후보와 정당에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과 핵심정책을 책임 있게 제안하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내놓은 정책과 공약을 엄밀하게 평가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나쁜 공약을 가려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공약에 한해서는 폐기를 촉구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다.

둘째, 후보자 중심의 대통령 선거가 아닌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를 만들어 갈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여망인 경제민주화, 생태복지사회, 교육개혁, 양성평등, 평화 국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유권자가 제안하고, 구체화하는 '아래로부터의 유권자 운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민의 삶에 기반한 요구와 제안을 집약하여 대선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 속의 시민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사회적 약자, 풀뿌리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이 생산하고 공급하는 선거보도, 서울과 수도권 유권자 중심의 선거보도에서 벗어나 지역의 목소리, 지역민의 요구와 제안이 반영되는 선거보도가 되도록 매체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하는 지역의제를 적극 발굴하여 제기하고 이를 여론화하여 대선이 지역민의 삶과 밀착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으로 정착시킬 것이다.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이 더 이상 국민적 혐오와 무관심, 정치인들만의 리그에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 국민 모두가 나와 가족, 우리 지역과 후세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대사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민주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않는, 역사발전의 시계를 뒤로 돌리지 않는 국민의 지도자와 좋은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축제로 만들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대선시민연대는 국민이 행복한 대선을 만들기 위해 현명하고 책임있는 대전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

2007. 10. 11

2007대전대선시민연대